

 상주적십자병원 대한적십자사		보 도 자 료	
배포일자	2026. 10. 19.(월)	매수	2매 (사진 별도)
실장	한은주	전화	054-530-3042
담당	김진이		054-530-3029

**상주적십자병원, 한국수출입은행 후원으로
‘누구나진료센터’ 로 외국인주민 건강 지키다**



상주적십자병원이 외국인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
혈압·혈당 측정 및 만성질환 관리 안내를 실시하고
있다



상주적십자병원이 한국수출입은행 후원
누구나진료센터 사업 홍보부스에서
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상담을
진행하고 있다.

- 상주적십자병원(병원장 김혁수)은 지난 10월 18일 구미시 낙동강체육공원 제2축구장에서 열린 「2026년 제21회 구미시 외국인주민 문화축제」에 참여해 한국수출입은행 후원 공공의료사업인 ‘누구나진료센터’ 사업 홍보와 외국인주민 의료지원 활동을 펼쳤다.
- 이번 활동은 한국수출입은행의 후원으로 추진하는 누구나진료센터 사업을 지역사회에 알리고,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주민과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.

- 상주적십자병원은 행사장 내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누구나진료센터의 지원 대상과 의료비 지원제도를 안내하고, 개별 상담을 통해 의료비 부담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대상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다. 아울러 혈압·혈당 측정을 실시하고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방법을 안내하는 등 건강관리와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한 의료지원 활동도 진행했다.
- 특히 외국인주민에게 공공의료 지원제도를 직접 안내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고, 경제적·정보적 장벽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의료접근성 향상에 힘을 보탰다.
- 상주적십자병원 누구나진료센터는 2025년 6월 10일 경북지역 최초로 개소한 후 한국수출입은행의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, 외국인 근로자 및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본인부담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의료안정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.
- 상주적십자병원 관계자는 “한국수출입은행의 후원으로 추진하는 누구나진료센터 사업을 통해 의료취약계층과 외국인주민이 필요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”며 “앞으로도 후원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의료비 지원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연계해 지역사회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겠다”고 밝혔다.
- 한편, 상주적십자병원은 한국수출입은행 후원으로 누구나진료센터 사업을 추진하며 의료취약계층과 외국인주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증진을 지원하고 있다.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공의료사업을 통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병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.